싱어송라이터, 라디오 디제이 프리티리틀아이리스의

애증의 취미

글. 아이리스 황 아리랑라디오 h[a:rt] attack 진행자

"취미는 꼭 사랑스러워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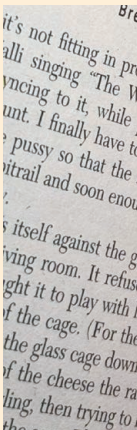
나의 취미는 애정의 취미와 증오의 취미로 나눌 수 있다. 나를 즐겁게 해주기에 취미가 되어버린 것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취미로 만들어버린 것들. 아마 노래를 하며 대중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 취미들 역시 갖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 그에 맞는 생활과 여가 시간까지 맞춰 나갈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겐 애정의 취미와 증오의 취미가 공존한다. 나를 혹독히 훈련시키는 취미들을 알아보기 전, 잠시라도 내 마음을 사랑스럽게 녹여주는 취미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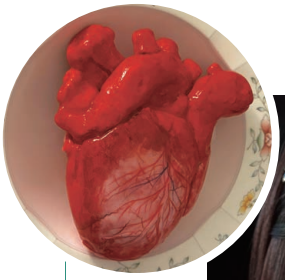
애정의 취미, 첫 번째

공포, 고어, 피와 비명은 나의 안식처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었다. 엄마 아빠는 4살인 나를 데리고 어린아이가 괴생물체에게 유괴당하는 영화를 보는 게 어째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했을까? 나의 유별난 공포영화 사랑은 부모님에게 책임 전가하겠다. 유난히 일이 힘든 하루, 과하게 사람들과 교류한 지치는 하루가 끝나갈 무렵엔 심장 너머에서, 안쪽 깊은 어딘가에서 속삭인다. '피를 볼 시간이야. 비명이 필요하지 않아?' 그럼 저항 없이 난 모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홀로 공포영화를 본다. 두려운 눈빛들과 시원한 비명들, 피가 낭자 하는 광경을 눈에 담은 이후 비로소 나는 충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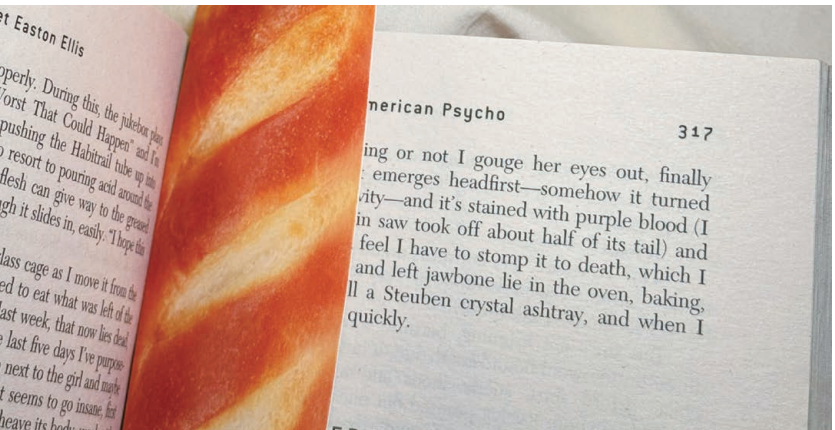
공포 사랑이 고작 영화 감상에서 끝날 리가. 그건 기본이다. 집에선 백색 소음 마냥 공포영화를 틀어놓는다. 나의 ASMR, 모닝콜, 밥 친구, 자장가, 빠짐없이 모두 호러.
마니아라는 건 아무래도 조금은 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들이 봤을 때 굳이? 싶은 것들을 하는 사람 말이다. 예를 들어, 머리에 칼 모양 핀을 꽂아 거리를 활보하고, 심장 모형 오브제를 수소문해 주문 제작하고, 본인의 아들을 뜯어먹는 사투르누스의 그림을 핸드폰 케이스에 프린팅하는, 그런 과함 말이다.

공포물의 바이블, 〈아메리칸 사이코〉는 그중에서도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다. 〈아메리칸 사이코〉가 없었다면 그 많은 외로운 밤들을 나는 어찌 보냈을까. 8시간을 쉬지 않고 이 책을 완독했던 어느 가을 주말은 아마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다. 세상이 공포영화에 조금 더 관대했더라면, 내가 진행하는 보이는 라디오에서 피 분장을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아쉽게도 내가 디제이로 있는 아리랑라디오 '하트어택'은 모두를 위한, 아주 친절한, 전체 관람가이다.



애정의 취미, 두 번째

우리 모두 매일 무언가를 먹죠. 저도 먹어요. 두 가지만...

훠궈가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공허했을지도. 종종 성격이 차갑다는 말을 듣지만, 이곳에서 난 그리도 따뜻해질 수 없다. 단순히 먹는 게 취미가 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조금 섭섭할 지경. 나에게 훠궈는 먹는 행위를 넘어섰다. 훠궈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 몸을 바쳐 실험했다. 어느덧 나의 시간, 열정, 돈이 모여 유명 훠궈 식당의 VIP 멤버가 되었다. 정신 차려보니 직원들과 단체 문자방이 생겼다. 방문만 하면 선물 세례를 받는다. 난 훠궈를 좋아하고 훠궈도 나를 좋아한다.

크리스마스도, 새해에도, 생일에도, 훠궈를 먹는다. 홀로 여유로이 훠궈를 먹을 땐 마치 스파에 온 것 같은 평온하고 따뜻한 경험이 선사된다. 아로마 향 대신 마라 향이 나지만.

따뜻한 훠궈 탕을 수영하고 있지 않을 땐 보통 백 프로의 확률로 빵과 함께한다. 이쪽은 훠궈와의 관계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취미라는 표현은 너무 작은 표현이다. 빵은 내게 삶이다. 빵을 매일 먹냐는 사람들의 질문이 언짢을 때도 있다.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거의 모든, 매 끼니 나는 빵을 먹는다.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간식, 심지어 훠궈를 먹을 때에도.

사랑은 무엇이든 극복하게 해준다. 음식 사진을 못 찍기로 유명했던 내가 손을 갈아 끼운 듯 빵으로 인해 다시 태어났다. 사진을 보면 피사체를 향한 작가의 감정이 보인다고 한다. 나의 빵 사진들은 사랑스럽고, 고귀하고, 수려하지 않나?

빵을 먹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밥 먹을 시간도 없었기에 수저가 필요 없는 빵을 끼니로 와구와구 먹으며 공부를 했다. 하루에 거의 두 시간도 못 잤던 시기에 살려고 먹었던 브라우니, 마카롱, 크림빵. 나를 살린 의인들이다. 고등학교는 끝났지만 빵과 나의 사이는 끝나지 않았다. 학생, 아티스트, 디제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내 옆을 한결같이 지켜주는 빵은 나의 절대적인 행복이자 영원한 취미다.

증오의 취미, 첫 번째

천사의 모습을 띤 하프

인생이 자비를 베풀어 달콤한 것들을 주면 더욱 우린 자신에게 엄격해져야 한다. 엄마가 나의 장난감을 뺏어 가기 전 숙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취미가 꼭 즐거울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취미도 억지로 해야 하나 싶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 가장 매혹적인 인간의 모습은 억제와 자제, 제한과 통제의 태도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참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키지 않는 것들을 해내며 더 나은 인간이 되어 가는 행위 그 자체가 취미가 되는 거다. 발전, 성취, 그리고 자부심을 느낀다면, 취미로 삼을 별다른 이유가 더 필요할까?

천사의 모습을 띠는 하프를 배우게 된 계기는 그리 천사 같지 않은 이유에서부터다.
엄마가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고 그 예쁨을 갖고 싶었다. 단순히 예쁘고 싶었다. 무엇이든, 누구든, 예뻐서 나쁠 건 없다는 소신은 나의 활동명 '프리티리틀아이리스'에도 나타난다.

하프가 증오의 취미인 이유는… 음악이 직업인 내가 취미로도 음악을 붙잡고 있는 게 고역스럽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퇴근한 이후 겨우 도착한 집에서 다시 컴퓨터를 켜고 엑셀 파일을 정리하는 회사원과 같달까?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직원은 엑셀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질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한 즐거움으로 매일 하프 연습을 하진 않지만, 뮤지션으로선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걸 알기에 지겹더라도 집에 도착하면 악보를 편다. 팬들도 하프 연주를 하는 내 모습을 좋아하는 걸 알기에 멈출 수가 없다. 나를 직업적으로 발전시키며 응원해 주는 이들을 만족시키는 이 취미를, 애정이 없다는 이유로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

증오의 취미, 두 번째

매주 이뤄내는 작은 기적, 발레

짧지 않은 이십몇 년의 삶을 살며 한 번도 인정하지 못한 괴상한 음모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존재한다. 안다. 하지만 눈으로 보고도 당최 공감이 안 간다. 어째서? 어떻게? 뛰고 들고 늘리는 행위가 누워 있는 행위보다 좋을 수가 있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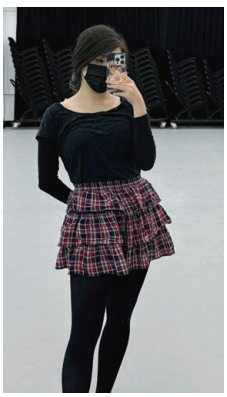
그렇기에, 예쁜 것들을 좋아하는 내가 찾은 유일한 운동 타협점은 당연하게도 발레다. 이왕 힘들 거라면 예쁜 옷을 입고 힘들 수 있기에.

방해하는 이가 없다면 15시간씩 깨지 않고 자는 게 특기다. 먹고 눕고 자는 건 전문이다. 그런 내가 침대에서 벗어나 집 밖을 나서 발레를 간다는 건 우스갯소리가 아닌, 정말, 기적이다. 운동은 매주 내가 이뤄내는 작고 소중한 기적이다.

어떤 달에는 일주일에 세 번. 어떤 계절은 일주일에 한 번. 한동안은 그마저도 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증오 취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의 부재다. 호두까기인형이라든가 에스메랄다를 배우고자 하는 꿈은 감히 갖지 않는다. 잘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나 자신을 상기시킨다. 걸음마 떼는 아이를 대하는 듯한 그런 관대함을 가끔은 베풀어줘야 한다. '일어났어? 잘했네. 집 밖을 나갔어? 엄청나다. 운동을 했다고? 너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그래?' 칭찬은 운동을 싫어하는 나도 춤추게 한다.

결과 상관없이 해낸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의미인 것들이 있다. 한다는 것은 해냈다는 것.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발레로 인한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은 내가 오늘도 해냈다는 증거다.



찬찬히 둘러보면 사실 사랑은 모든 곳곳에 심어져 있다. 그건 증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린 증오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애정만큼이나 증오는 우리를 발전시킨다. 증오를 그만 증오하자.

사랑이든, 증오든, 무엇이 되었든 간, 우리를 매일 일으키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오늘도 그냥, 정말 그냥, 삶을 이어나가 보자.